

#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및 정보탐색행동\*

## Consumers' Awareness and Information-Seeking Behaviors Towards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GMO)\*

인제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조교수 김 효 정

경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부교수 김 미 라

Dept. of Family & Consumer Sciences, Inje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Hyochung Kim

Dept. of Food Science & Nutri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Meera Kim

### ◀ 목 차 ▶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 론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found out the consumers' awareness and information-seeking behaviors towards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GMO). Data were collected from 506 adults in Seoul, Daegu, and Busan by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equencies,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by SPSS Window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concerns and the need for information about GMO were high, but recognition was low, (2) the factor affecting the need for information about GMO was the concerns about GMO, and (3) sex, age, the need for information about GMO, and subscription experience of consumer journals were the factors affecting the information-seeking behaviors.

**주제어(Key Words):** 유전자재조합 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소비자 인식도(consumers' awareness), 정보탐색행동(information-seeking behaviors)

\* 본 논문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도 건강증진연구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음.

## I. 서론

최근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식품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식품의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품질을 개선하는 등의 여러 가지 생물학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 중의 한 가지가 유전자재조합 식품으로, 이는 어떤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예: 추위, 병충해, 살충제, 제초제 등에 강한 성질)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에 삽입하여 만든 새로운 농, 축, 수산물 중 안전성이 확인되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식품의약품안전청, 1998). 많은 언론에서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데, 최근 뉴스에 의하면 (<http://www.kbs.co.kr>) 콩과 옥수수 등 수입 농산물로 만드는 식품이 유전자변형 농산물로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소비자의 우려로 두부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는 세계적으로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안전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채 이에 대해 피상적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소비자정보인데, 이는 재정적, 심리적인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줌으로써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요인(서정목·문숙재, 1987)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도로 발달된 기술과 복잡 다양화된 소비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제품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은 선택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선택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비자정보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식품이 갖는 비중과 우리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식품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소비자 정보가 갖는 비중은 다른 재화못지 않게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소비자정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한 영역 또는 특정한 상품보다는 전반

적인 소비자탐색행동에 관심을 두고 있다(여정성, 1989; 예종석·김진병, 1990; 이은희, 1993; 채정숙,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안전성에 있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거의 없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을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들의 인식도 및 정보탐색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정도를 살펴보고,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보요구도 및 정보탐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소비자가 식생활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소비자정보환경을 개선하며 소비자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소비자정보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유전자재조합 식품

1986년 미국의 칼진(Calgene)사가 숙성 기간을 연장시켜 껍질이 물러지는 것을 방지한 토마토(상품명: FLAVR SAVR)를 개발한 것을 시초로 많은 국가에서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관한 실험과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을 하는 목적은 농산물이 병과 해충에 잘 견디도록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많은 식량을 수확하기 위해서이다. 또 교배가 불가능했던 생명체간에 유전적 성질을 교환하여 저장성, 영양성을 향상시키고 품질 향상을 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에 대해서는 품질과 영양이 향상되거나 식량난을 해결할 '제2의 녹색혁명'이라고 찬사를 보내기도 한다(임은정, 1999). 현재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은 콩, 옥수수, 감자, 토마토, 땅콩, 벼 등 약 50종에 이른다. 이들 유전자재조합 작물을 생산하는 국가는 미국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 캐나다, 호주, 중국, 아르헨티나, 멕시코가 주요 생산국이다(배윤성, 2000).

1999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콩가공 식품인 두부

에 대해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사용 검출 여부를 시험해 본 결과 총 22개 제품 중 18개 제품에서 유전자재조합 성분이 검출됐다. 그리고 '국산콩 100% 제조' 했다고 적어놓은 6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도 유전자재조합 성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콩과 수입콩의 가격 차이를 고려해볼 때 수입콩이 국산콩으로 불법 유통되어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소비자들로서는 제품에 나와있는 표시만 믿고 두부를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확한 표시와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유럽연합(EU)은 1998년 9월부터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유전자재조합에 의한 식품'임을 밝히는 표시를 하고 있으며 개발한 모든 식품에 대해 안전성을 평가한 후 유전자재조합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도 1999년 8월 유전자재조합 대두, 옥수수, 감자, 유채, 면실, 토마토와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등 28개 품목에 대해 표시의무화를 결정했으며 2001년 4월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김영찬·박경진·이홍석·김동연, 1999).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1999년 8월 20일 '유전자재조합 식품·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 자료 심사 지침'을 확정하여 고시하였다. 표시와 관련해서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에 대한 표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2001년 3월부터 대두, 옥수수, 콩나물을 대상으로 표시를 하고 있으며,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도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200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http://www.kfda.go.kr>).

현재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 중 유전자재조합 식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은 첫째, 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살충제의 사용을 줄이게 되어 환경에 이익이 된다는 점, 둘째, 유전자재조합을 통해 인체에 해로운 지방을 대체하거나, 숙성을 지연시켜 영양과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신정섭, 1996; Federal Register Notices, 1996; Jaffe, 1973; <http://www.khidi.or.kr>). 그러나 많은 학자와

소비자단체, 환경단체들은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개발은 새로운 생물체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박선희, 1999; 임윤정, 1999; <http://www.cpb.or.kr>). 이들은 유전자재조합 식품이 이제까지 사람이 섭취하지 않았던 식품들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장기간 동안의 연구와 시험 결과가 없어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고, 또한 식품 알레르기가 있거나 저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더 많으며, 해충과 잡초가 살충제와 제초제에 내성을 가지게 될 경우 더 강한 효과의 제품을 개발해야 하고 더 많은 양의 살충제와 제초제를 사용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두, 옥수수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김영찬 등(1999)은 식품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464명의 98.7%로 인지도가 매우 높았으며, 학계에 종사하는 40대 이상 남성의 인식정도가 가장 높았다. 유전자재조합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1.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해 잘 알고 있을수록 구매하겠다는 비율이 더 높았고, 85.3%가 표시를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2. 소비자의 정보탐색행동

소비자정보란 "소비자가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시장 상황의 인지내용으로서 현재 및 미래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불확실한 정도를 감소시켜 주며 소비자 자신의 욕망충족 및 기타 목표설정에 유용하고 유의성있는 가치를 지니는 것"(이은희, 1993)이다. Atkin(1973)에 의하면 사람들은 어떤 대상에 대해 현재 알고 있는 지식 수준과 희망하는 지식 수준 사이의 불일치를 느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욕구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보요구라고 하였다. 또

한 이은희(1993)는 소비자들이 구매선택과정에서 상품들의 품질과 성능을 비교, 판단하고 보다 바람직한 선택을 하기 위하여 현재 알고 있는 지식 수준과 그가 희망하는 지식 수준 사이에 느껴지는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욕구가 발생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을 소비자 정보요구라고 하였다.

이러한 소비자 정보요구는 실제적인 정보탐색 활동을 동기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정보탐색 활동이란 소비자 정보요구의 이행과정이라 할 수 있다(이은희, 1993). 정보탐색은 그 원천에 따라 자신의 기억에 저장된 정보들을 인출해내는 내적탐색과, 이러한 내적탐색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없을 때 소비자 자신의 외부에서 관련정보를 얻으려는 외적탐색으로 구분된다(임종원·김재일·홍성태·이유재, 1999). 그러나 많은 장애요인에 의해 정보탐색 활동은 적어지게 되는데, 이는 소비자 자신들의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소비자정보처리 능력의 한계, 정보비용의 문제, 무임승차자(free-rider) 문제, 정부의 정보정책 부재로 인한 문제점 등에 기인한다.

Nelson(1970)은 소비자들이 상품의 질을 탐색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탐색재와 그렇지 못한 경험재로 구별하면서,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탐색은 상품특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신상품이 나오면 탐색재의 경우 소비자는 탐색을 통해 그 상품의 질을 완전히 알 수 있지만, 경험재는 경험을 통해서만이 그 상품의 질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탐색을 통한 이익보다는 비용이 더 큰 경우가 많게 되어 결과적으로 경험재 탐색은 별로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소비자의 정보요구도와 정보탐색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소득, 제품관여도, 정보획득 곤란정도, 정보이해 곤란정도, 제품에 대한 지식 등을 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정보요구도와 정보탐색 활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김성숙·이승신, 2000; Phillips & Sternthal, 1977), 이는 연령이 많을수록 정보처리 능력이 감퇴

되고 보다 많은 시장경험으로 정보구별 능력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수준은 정보요구도 및 정보탐색 활동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권자숙, 1995; 한국소비자보호원, 1989),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보요구도와 정보탐색 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수준과 정보요구도 및 정보탐색 활동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학자마다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최병선(1989), 한국소비자보호원(1989)의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보탐색량은 증가했으나, Swagler(1979)의 연구에서는 중간소득계층의 정보탐색량이 가장 많았다. 또한 권자숙(1995)의 연구에서는 중간소득계층의 정보요구도가 높았으나, 김성숙·이승신(2000)의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보요구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관여도는 소비자정보의 요구도 및 정보탐색 활동에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이은희, 1993; Engel, Blackwell & Miniard, 1995), 관여 수준이 높을수록 정보요구도 및 정보탐색 활동이 많았다.

또한 소비자들이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하는 능력도 정보탐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김성숙·이승신, 2000), 안전정보를 획득하거나 이해하는데 곤란을 느낄수록 안전정보탐색을 더 많이 하였다. 그리고 소비자교육 경험과 전문지 구득 경험도 정보요구도 및 정보탐색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김성숙, 1997; 김성숙·이승신, 2000; Thorelli & Sentell, 1982), 소비자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소비자정보지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정보탐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에게 인지된 상품지식은 정보탐색과는 부적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서(박명희, 1998) 상품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정보탐색은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관련 요인을 선정하였으며, 제품에 대한 관여도 및 제품에 대한 지식 요인을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관심도 및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인지도라는 용어로 각각 사용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정보요구도, 정보탐색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탐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

####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관심도, 표시제도의 필요성 및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해 필요로 하는 정보 등에 대한 문항을 포함시켰으며,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탐색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요구도,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획득 곤란정도,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이해 곤란정도,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탐색 정도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가계소득, 소비자교육 경험 및 소비자전문지 구독 경험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인지도: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다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들은 적이 없다'에 1점, '들은 적은 있으나 그것에 대해 잘 모르겠다'에 2점, '들은 적이 있으며 그것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에 3점, '들은 적이 있으며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에 4점을 부여하였다.

2)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관심도: 이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정도로 '전혀

관심없다' 부터 '매우 관심있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3)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표시제도에 대한 필요성: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표시제도를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지 묻는 문항으로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 '전혀 필요없다', '잘 모르겠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4)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요구도: 이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필요로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필요하지 않다'에서 '매우 필요하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보요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5)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해 필요로 하는 정보: 유전자재조합 식품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묻는 문항으로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외국의 허가 기준',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표시규제',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유전자재조합을 통한 잇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6)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획득 곤란정도: 소비자들이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얻기 쉬웠는지에 대해 정보를 얻기 '매우 쉬웠다'에서 '매우 어려웠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을 의미한다.

7)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이해 곤란정도: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이해하거나 활용하기 쉬웠는지에 대한 정도를 물어보았다. 측정은 '매우 쉬웠다'에서 '매우 어려웠다'까지 5점 척도로 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을 의미한다.

8)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탐색 정도: 유전자재조합 식품과 관련된 정보를 어느 정도 탐색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전혀 탐색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탐색한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보탐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9)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가계소득, 소비자교육 경험,

소비자전문지 구독 경험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소비자교육 경험은 소비자가 소비자단체나 기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비자교육을 받은 경험을 의미하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는 0점, 있는 경우는 1점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소비자전문지 구독 경험은 소비자가 소비자단체나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소비자전문지(예: 소비자시대, 월간소비자)와 같은 잡지를 구독한 경험을 의미한다. 구독경험이 없는 경우는 0점을, 구독경험이 있는 경우는 1점을 부여하였다.

### 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및 정보탐색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 대구 및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조사에 앞서 2000년 10월 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한 후 2000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각 지역에 있어서 구(區)마다 고르게 표본이 되도록 각각 200부씩을 배부하여 서울 192부, 대구 185부, 부산 182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부실기재라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하여 본 연구에서는 50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그리고 정보요구도 및 정보탐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과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Pearson의 상관분석 결과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수가 .6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회귀분석에서 성별(0=남성, 1=여성), 교육수준(0=고졸 이하, 1=전문대졸 이상), 소비자교육 경험(0=없음, 1=있음), 소비자전

문지 구독 경험(0=없음, 1=있음)은 가변수로 처리하였고, 다른 변수들은 원점수를 이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이 34.4%, 여성이 65.6%이었고, 연령은 20대, 30대가 전체 응답자의 68.3%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45.1%, 전문대졸 이상이 54.9%이었다. 직업은 주부가 28.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사무직(21.3%), 학생(17.6%), 전문직(16.8%) 순이었다. 월가계소득은 1,500,001~2,000,000원 이하가 전체 응답자의 39.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000,001~1,500,000원 이하(17.4%), 3,000,001원 이상(16.4%) 순이었다. 도시별로는 서울 34.4%, 대구 32.0%, 부산 33.6%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82.6%가 소비자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으며, 39.5%가 소비자전문지를 구독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정도 및 정보탐색행동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정도 및 정보탐색행동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전체응답자의 45%만이 '들은 적이 있으며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식품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98.7%의 인지도를 보였던 김영찬 등(1999)의 연구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식품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의 대부분은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해 적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보면 전체응답자의 87.6%가 '보통', '대체로' 또는 '매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06)

변수	구분	빈도(%)	통계치	
성별	남성	174(34.4)		
	여성	332(65.6)		
연령	20~29세	193(38.1)	최소값	20.00
	30~39세	153(30.2)	최대값	70.00
	40~49세	89(17.6)	평균	35.09
	50~59세	60(11.9)	표준오차	10.92
	60세 이상	11( 2.2)		
교육 수준	고졸 이하	228(45.1)		
	전문대졸 이상	278(54.9)		
직업	전문직	85(16.8)		
	사무직	108(21.3)		
	판매, 생산, 노무직	72(14.2)		
	학생	89(17.6)		
	주부(여성)/무직(남성)	142(28.1)/10( 2.0)		
월가계 소득	1,000,000원 이하	39( 7.7)	최소값	300,000.00
	1,000,001~1,500,000원 이하	88(17.4)	최대값	7,000,000.00
	1,500,001~2,000,000원 이하	201(39.7)	평균	2,342,194.77
	2,000,001~2,500,000원 이하	37( 7.3)	표준오차	1,095,180.55
	2,500,001~3,000,000원 이하	58(11.5)		
3,000,001원 이상	83(16.4)			
도시	서울	174(34.4)		
	대구	162(32.0)		
	부산	170(33.6)		
소비자 교육 경험	교육경험 없음	418(82.6)		
	교육경험 있음	88(17.4)		
소비자 전문지 구독 경험	구독경험 없음	200(39.5)		
	구독경험 있음	306(60.5)		

표시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한 결과 전체응답자의 92.5%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2.6%만이 '전혀 필요없다'고 응답하여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표시를 통해 유전자재조합 식품과 일반식품을 식별하기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요구도를 살펴보면 전체응답자의 42.9%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조금 필요하다'가 36.0%, '보통'이 16.4%로 나타났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순서를 질의한 결과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72.5%),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표시규제(13.4%), 유전자재조합을

통한 잇점(8.7%),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외국의 허가 기준(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응답자들이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문제로 학계나 소비자단체 등에서 이에 대한 개발 및 생산에 대해 계속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전자재조합 식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얻기 쉬웠는지 질의한 결과 전체응답자의 53.4%가 '다소' 또는 '매우 어려웠다'라고 응답하였고, 40.7%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반면, '조금' 또는 '매우 쉬웠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5.9%로 나타

〈표 2〉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정도 및 정보탐색행동

(N=506)

변 수	구 분	빈도(%)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인지도	들은 적이 없다	123(24.3)
	들은 적은 있으나 그것에 대해 잘 모르겠다	218(43.1)
	들은 적이 있으며 그것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	142(28.1)
	들은 적이 있으며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	23( 4.5)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관심도	전혀 관심없다	8( 1.6)
	별로 관심없다	55(10.9)
	보통이다	126(24.9)
	대체로 관심있다	181(35.8)
	매우 관심있다	136(26.9)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표시제도에 대한 필요성	필요하다	365(72.1)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	103(20.4)
	전혀 필요없다	13( 2.6)
	잘 모르겠다	25( 4.9)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요구도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0.2)
	별로 필요하지 않다	23( 4.5)
	보통이다	83(16.4)
	조금 필요하다	182(36.0)
	매우 필요하다	217(42.9)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해 필요로 하는 정보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외국의 허가 기준	27( 5.3)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표시규제	68(13.4)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367(72.5)
	유전자재조합을 통한 잇점	44( 8.7)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획득 곤란 정도	매우 어려웠다	50( 9.9)
	다소 어려웠다	220(43.5)
	보통이었다	206(40.7)
	조금 쉬웠다	26( 5.1)
	매우 쉬웠다	4( 0.8)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이해 곤란 정도	매우 어려웠다	26( 5.1)
	다소 어려웠다	147(29.1)
	보통이다	271(53.6)
	조금 쉬웠다	50( 9.9)
	매우 쉬웠다	12( 2.4)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탐색 정도	전혀 하지 않는다	15( 3.0)
	별로 하지 않는다	111(21.9)
	보통이다	144(28.5)
	조금 한다	176(34.8)
	많이 한다	60(11.9)

나서 많은 응답자가 유전자재조합 식품과 관련된 정보나 지식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전자재조합 식품과 관련된 정보나 지식을 이해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쉬운지에 대한 질문

에 '보통이었다'라는 응답이 5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다소 어려웠다(29.1%)', '조금 쉬웠다(9.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탐색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응답자



의 46.7%가 '조금' 또는 '많이 한다' 라고 응답하였고, '보통이다'가 28.5%, 그리고 '전혀' 또는 '별로 하지 않는다'가 24.9%이었다.

**3.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독립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가계소득,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인지도,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관심도, 소비자교육 경험, 소비자전문지 구독 경험이 포함되었다. 중회귀분석 결과,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관심도만이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의 설명력은 22%로 나타났다. 즉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해 관심이 많을수록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품의 관여도가 높을수록 정보요구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이은희, 1993; Engel et al., 1995)와 일치하는 것이다.

<표 3>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요구도의 중회귀분석

독립변수	b	$\beta$
성별 <sup>a)</sup>	.077	.041
연령	-.003	-.033
교육수준 <sup>a)</sup>	-.018	-.010
월가계소득	3.227E-08	.005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인지도	.065	.063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관심도	.379	.477***
소비자교육 경험 <sup>a)</sup>	-.123	-.054
소비자전문지 구독 경험 <sup>a)</sup>	-.006	-.005
상수		2.519
표준화된 R <sup>2</sup>		.222
F값		19.860***

\*\*\* p<.001

a) 가변수로 처리되었음.

**4.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탐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4>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탐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가계소득,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인지도,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관심도, 유전자재조

<표 4>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탐색 정도의 중회귀분석

독립변수	b	$\beta$
성별 <sup>a)</sup>	.434	.193***
연령	.013	.140**
교육수준 <sup>a)</sup>	-.046	-.022
월가계소득	5.128E-09	.005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인지도	.073	.059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관심도	.044	.047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획득 곤란정도	.058	.044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이해 곤란정도	.094	.072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요구도	.171	.144**
소비자교육 경험 <sup>a)</sup>	.013	.004
소비자전문지 구독 경험 <sup>a)</sup>	.209	.143**
상수		.596
표준화된 R <sup>2</sup>		.129
F값		8.102***

\*\* p<.01 \*\*\* p<.001

a) 가변수로 처리되었음.

합 식품에 대한 정보획득 곤란정도,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이해 곤란정도,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요구도, 소비자교육 경험, 소비자전문지 구독 경험이 독립변수로 포함되었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탐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연령,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요구도, 소비자전문지 구독 경험이었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3%이었다. 즉 남성에 비해 여성인 경우, 연령이 많고,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요구도가 높으며 소비자전문지를 구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일 경우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해 정보탐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정보탐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식품의 구매, 조리 등을 주로 여성이 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연령이 많을수록 정보탐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구매경험이 증가하여 적절한 정보를 구별하는 능력이 더 많아 지기는 하지만, 유전자재조합과 같은 신기술에 대한 정보는 많은 시장경험을 통해서도 획득되어질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최병선(1989)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때문에 연령과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탐색 활동은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사료된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및 정보탐색행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 대구 및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000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설문지를 통한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정도 및 정보탐색행동을 살펴보면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관심도와 정보요구도는 높았으나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표시규제, 유전자재조합을 통한 잇점,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외국의 허가 기준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전자재조합 식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많은 응답자들이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탐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정보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관심도만이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서,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해 관심이 많을수록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탐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연령,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요구도, 소비자전문지 구독 경험으로 나타나서, 남성에 비해 여성인 경우, 연령이 많고,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요구도가 높으며 소비자전문지를 구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일 경우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해 정보탐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았으며,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표시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표시제도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획득 곤란정도에서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들이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알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소비자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새로운 식품이 개발됨에 따라 신문, 잡지, TV 등을 통해 식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대체로 단편적인 정보전달에 불과하여 소비자가 올바른 식품정보를 습득하는데 있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중매체나 소비자관련기관에서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요구도 및 정보탐색 정도를 비교해보면, 정보요구도에 비해 정보탐색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들이 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 실제로 탐색을 하는 노력은 덜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에서 제시되었던 것과 같이 소비자 자신들의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정보비용의 문제 등 정보탐색의 장애요인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자신이 섭취하는 식품이 과연 안전한 것인지 알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소비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탐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소비자정보 환경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령이 많을수록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탐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새로운 정보에 대한 처리능력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연령에 맞추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다양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젊은 층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장년층의 경우에는 TV나 라디오 등을 통한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 주며, 노년층의 경우 노인대학의 강의내용에 유전자재조합 식품을 포함시켜 시청각 자료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식도 및 정보탐색행동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후속연구에 있어서는 유전자재조합 식

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의도를 살펴보고 정보탐색행동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권자숙(1995).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정보 요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숙(1997). 소비자의 안전의식과 안전추구행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숙, 이승신(2000). 상품 안전정보에 관한 소비자 행동 연구. 소비자학연구, 11(3), 59-85.
- 김영찬, 박경진, 이홍석, 김동연(1999). 유전자조합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본인식 조사: 식품 관련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한국식품위생학회지, 14(4), 397-407.
- 박명희(1998). 소비자의사결정론. 2판, 학현사.
- 박선희(1999). 유전자재조합 식품과 안전성 평가. 한국공공연구회지, 16, 20-30.
- 배윤성(2000). 유전자재조합 식품 시험 검사, 그 이후. 소비자시대, 7, 32-33.
- 서정목, 문숙재(1987). 소비자정보 유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1), 101-119.
- 식품의약품안전청(1998).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올바른 이해.
- 신정섭(1996). 유전자 조작에 의한 과채류의 저장성 향상 기술. 식품과학과 산업, 16, 2-8.
- 여정성(1989). 소비자정보탐색활동의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15-23.
- 예종석, 김진병(1990). 우리나라의 정보탐색자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1), 159-188.
- 이은희(1993). 소비자정보의 요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은정(1999).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 물려온다: 올해 수입 콩의 38%가 유전자 재조합 콩으로 밝혀져. 소비자시대, 12, 45-47.
- 임종원, 김재일, 홍성태, 이유재(1999). 소비자행동론. 2판, 경문사.
- 채정숙(1993). 정보탐색 노력과 관련변수와의 관계

- 에 관한 연구: 가구제품 구매에서 인지된 탐색비용 및 탐색이득과 정보탐색 노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4(1), 75-92.
- 최병선(1989).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보역할 및 규제 의 합리화: 소비자안전문제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28(1), 179-210.
- 한국소비자보호원(1989). 소비자위해실태 및 안전 의식.
- Atkin (1973). *Instrumental utilities and information seeking: New models for communication research*. Clarks: Hills and Sage.
- Engel, J. F, Blackwell, R. D., & Miniard, P. W. (1995). *Consumer Behavior*, 8th ed., Fort Worth: Dryden Press.
- Federal Register Notices (1996). *USDA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s*.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 Jaffe, W. G. (1973). In toxicants occurring naturally in food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6-128.
- Nelson, P. (1970). Information and consumer behavior.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8, 311-329.
- Phillips, L. & Sternthal, B. (1977). Age differences in information processing: A perspective on the aged consume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4, 444-457.
- Swagler, R. M. (1979). *Consumer and the Market*. 2nd ed., MA: D. C. Heath and Company.
- Thorelli, H. B. & Sentell, G. D. (1982). *Consumer emancip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case of Thailand*. London: JAI Press Inc.
- <http://www.cpb.or.kr>
- <http://www.kfda.go.kr>
- <http://www.khidi.or.kr>
- <http://www.kbs.co.kr>